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 참석해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포상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 참석해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포상을 직접 수여했다.

이번 시상식은 2018년 이후 5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수상자 가족들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하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의미를 더했으며, 역대 최초로 국무위원들이 함께 참석해 수상을 축하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헌신이 곧 국민과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어 "늘 현장에 민생이 있다는 자세로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고,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도록 더욱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이라며,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공직자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헌법적 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오찬에서는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의 소감 발표도 이어졌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서울특별시 경찰청 과학수사과 이준희 경사는 "평소에 본인의 업무가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열심히 일해 상을 받게 된 것 같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장 배성진 사무관은 "그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현재 가족 4명 모두 지방 공무원인데, 오늘 같이 참석한 딸도 나중에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신중웅 경사의 배우자 허

정원 씨는 "남편이 일에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수상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관세청 국제조사과 주영호 주무관의 아들 주철현 군(2011년생)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한 아버지가 자랑스럽다"면서, 본인도 "우리 사회에 도움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찬을 마치고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서훈을 수여하고 식사를 함께해 주셔서 공직자와 가족들에게 큰 격려가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나해 윤석열 대

통령께서 취임하신 후 인기 위주의 정책보다는 국가를 위해 옳은 일,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해 왔다"고 강조하고, "이제까지 해 왔던 것처럼 내내에도 국민만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오찬 종료 후 참석자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행사장 앞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오늘 시상식에는 수상자 및 가족 110여 명을 비롯해 국무위원 및 국무회의의 장차관급 배석자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최광수/기자

서울시, 26일 국내 최초 복합터널 '이수~과천' 실시협약.. '30년 개통 목표'

오 시장,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함께 서울 남부지역의 큰 축을 담당할 것 기대"



이수~과천 구간에 도로터널이자 빗물배수터널 기능을 하는 '국내 최초 복합터널' 구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시는 2025년 상반기에 공사에 들어가 2030년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시장(6층 영상회의실)에서 이수과천복합터널(주)의 대표사인 롯데건설(주)과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협약을 맺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현철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일하 동작구청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신계용 과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실시협약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와 공공이 사업시행 조건 등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민간투자사업이 본격도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시행자는 롯데건설(주)가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는 이수과천복합터널(주)로, 실시협약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수과천복합터널(주)는 대표회사인 롯데건설(주)을 비롯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총 9개사가 출자해 설립됐다.

양측은 사업 시행과 이행 조건 등을 합의하고 실시협약서에 서명했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6개월이며,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은 2017년 3월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민자적격성조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실무협상 등을 완료하고, 올해 9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이번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동작·과천대로의 교통 정체와 사당·이수지역의 침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다기능 복합터널'로, 서울 동작구 동작동(이수교차로)에서부터 경기 과천시 과천동(과천대로)까지 5.61km 길이의 왕복 4차로 '도로터널'과 3.3km 길이·저류용량 42만4천m³의 '빗물배수터널'을 함께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으로 추진된다.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시에 이전하고, 30년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이 개통되면 동작구(이수교차로)와 과천시(과천대로)를 직통하는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가 뚫리면서 하루 약 5만 대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돼 지상도로의 차량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빗물배수터널 건설로 사당·이수 지역 저지대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지난 3월 실시협약을 체결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함께 서울 남부지역의 큰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하도로가 개통되면 남부지역 교통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서울의 도시 발전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경북도, '24년도 해양수산분야 국가투자예산1,381억원 확보!

신규사업 10건 대거 반영, 향후 5년간 1,804억원 투입

경상북도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에 해양수산분야 국가투자예산 44개 사업이 반영되어 2024년 국비 1,38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규 반영된 사업으로는 포항 환동해 블루카본 인프라 조성(400억원) 경주 환동해 관광어페어 플라자 건립(202억원), 영덕 백석·고래불지구 연안정비사업(280억원) 등 10개 사업이 반영됐으며, 2024년 1차년도 예산을 포함해 향후 총사업비 1,804억원이 추가로 투입

될 예정이다.

이는 해양수산분야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이경관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과장 및 실무진들이 수시로 해수부·기재부 및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친 결과다.

이외에도, 올해 해양수산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경주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490억원, 영덕 스마트 수산공단지 조성 380억원이 기확보됐으며, 이를 통해 지역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담은 해양관광 산업 활성화로 내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문화공간 조성하고, 수산물물의 스마트가공 인프라 조성을 통

한 고부가가치화로 수출경쟁력 강화와 청장년 창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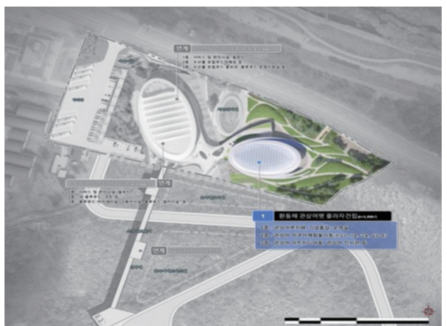
또한, 경북도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2개 유형 19개소, 1,227억원을 공모 신청하여 현장심사 등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 중 공모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어촌지역 특화개발을 통한 생활·경제 환경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경북 미래 수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해양수산 발전방안 모색과 해양수산 역점사업 발굴 및 부처·기재부 건의 자료 활용 등 2025년 국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돌입할 예정이다.

이경관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경북도 해양수산분야 미래 성장동력 마련

을 위해 국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면서, "확보된 국비사업의 면밀한 추진과 지속적인 국비 건의 활동을 통해 환동해를 이끌어가는 경북 동해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1석 3조

고향사랑 기부제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 쌀, 사과, 한우, 버섯, 고춧가루, 참·들기름, 전통장류, 오미자액기스, 육포, 유기, 봉화사랑상품권 등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부천 삼정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 수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2월 21일 부천 삼정초등학교로부터 교육환경 개선의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상했다. 올해 부천 삼정초등학교는 교내 미세먼지 저감, 자연학습 공간 조성을 위해 '울타리 및 학교숲'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며, 노후된 담장

400m(미터)와 학교 내 유유지 1천100m²(제곱미터)에 생태공간, 휴게공간, 학습공간 등을 조성하면서 황진희 의원은 해당 지역 도의원으로서 각종 예산지원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황진희 의원은 "학교숲 조성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미래를 꿈꿀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지역 구 도의원으로서 학생과 주민을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지역을 위해 일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황진희 의원은 "무엇보다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뤄낸 것이 의미가 있었다."며 "다가오는 2024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으로 경기교육의 주체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누리과정 지원 위한 어린이집보육료 209억 증액 환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된 '누리과정지원을 위한 어린이집보육료 만 5세 추가지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예산 209억원 증액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최 의원은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예결위 심의에서 유보통합운영을 위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대해 "급식비는 선도교육청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만 5세에 대해서는 학부모 부담금 경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앞서 최 의원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 지난 6월 회기 때부터 0~2세 영아반 급식 지원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 결과 유아급식비 1인당 45,730원을 기준으로 12개월 총 670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교육청 예산을 확보했다. 또 예결위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된 만큼 0~2세 지원을 확대 지원하는 등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

2024년 1월부터 영아 운영비 지원 예산 108억원을 도청 예산으로 확보했다. 이는 0세부터 2세 영아 운영비 지원으로 현원 기준 40명 미만인 경우 1인당 1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최 의원은 "'누리과정지원을 위한 어린이집보육료 만 5세 추가지원'에 대한 209억원 증액 결정에 환영 입장"이라며 "예결위원으로서 예산 증액 편성에 주도적인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앞으로도 선도교육청이라는 시범사업도 좋지 않 소외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며 도청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합리적으로 지원하여 유보통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 설계와 집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재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이 21일 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와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지역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불균형 해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제정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기금 재원 및 용도 △기금 운용·관리 관련 사항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 손익기산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이 경기도내

지역불균형 현상의 해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소중한 발판 마련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기금을 마련하고 조성하는데 있어 재량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며 이번 조례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본회의 조례 통과 직후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을 소개하며, "경기북부발전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유무와 관계없이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모두가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1월 9일,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도정질문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지역 대개발에 대해 내실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에서 재원확보차원으로 기금 마련 및 조성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사업이 전무한 기금들의 통·폐합하여 기금재원으로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김범상/기자

다 같이 나누는 가치를 문화예술교육으로 만나다. 경기상상캠퍼스 '다(多)가치 상상' 성료

경기도 내 문화취약계층 지역 기관 연계 교육 경기상상캠퍼스 '다(多)가치 상상' 성료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는 문화취약계층 지역 기관 연계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 '다(多)가치 상상'(이하 '다가치 상상')의 운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술과 예술'을 주제로 총 16개 경기도 내 지역 기관과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했다. '다가치 상상'은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필요로 하는 경기도 내 지역 기관을 연계하여 경기상상캠퍼스와 지역 사회를 연결하고,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고자 기획한 지원사업이다. 코로나19 기간 중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감소했던 지역 기관과 연계하여 경기상상캠퍼스의 자산인 '술과 예술'을 주제로 도민들과 함께 많은(多)가치를 공유하고자 다(多)가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16개 지역 기관과

협업하여 진행했으며, 누적 1,339명이 참여했다. 지역 기관: 고양시 덕양행신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구세군장애인주간보호시설, 김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루우물작은도서관, 문화더함공간서로, 별터은, 서호노인복지관,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휴, 수원여성회, 수봉재활원, 시흥시 목감종합사회복지관, 아름학교,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특히 경기도 내 총 7개 문화예술교육단체(더해라 커뮤니티, 두비아뮤직컨설팅, 씨드앤그로우, 창작공동체 무적의 무지개, (주)재재, 탐조책방, 플러스코프(주))가 함께한 '술과 예술' 주제의 예술교육을 많은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자연 속 움직임으로 예술 치료를 만나는 '몸술몸술 더하기', 기관 근교의 숲을 기반으로 음악·미술 등을 경험하는 '숲에서 만난 바다', 숲의 자연물을 재료로 자연친화적 예술활동을 진행하는 '마음을 그리는 숲', 숲속 동물들의 의상을 입고 뮤지컬 넘버



'너 우리 동네 왜 왔어?'를 부르며 동네 숲에서 더불어 살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너 우리 동네 왜 왔어?', 숲속 제로웨이스트를 예술활동으로 만나는 '숲에서 만나는 제로웨이스트',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새를 만나고 나무와 실로 직접 만들어 보는 '숲에서 새와 함께 보내는 하루', 씨앗이 새싹을 거저 숲이 되는 과정을 오감으로 경험하는 '씨앗, 숲피어라' 등이 진행됐다. 경기상상캠퍼스로 참여자들을 모셔오기도, 지역 기관으로 교육 단체들이 찾아가기도 하며 참여자들이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고자 했다. 참여자 및 지역 기관 담당자는 "평소 경기상상캠퍼스에 나들이로만 방문했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공간을 경험할 수 있어 좋았다.", "기관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쉽지 않았는데, '다가치 상상'을 통하여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연계 기회가 이어지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임종식 경북교육감, 2024 새해맞이 기자회견 개최

2024년을 세계교육 표준을 창출하는 K-EDU의 원년으로 만들 것

경북교육청은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지난 27일, 본청 오피스에서 100여 명의 출입 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교육 표준을 창출하는 K-EDU의 원년'('대한민국 경북교육의 원년')이라는 주제로 '2024 경북교육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새해맞이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은 2023년 경북교육을 되돌아보고, 2024년 경북교육의 핵심 가치, 전략,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한 다음, 출입기자단의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2023년을 따뜻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 표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한 해로 평가하고 △디지털 대전환 기반 구축 △체육. 직업 교육으로 경북교육의 우수성 입증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인성 교육 △따뜻한 맞춤형 복지 확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개별 맞춤형 교육 등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아울러, 2024년 '성장, 조화, 미래'를 핵심 가치로 하고 '제일 먼저 새롭게, 보다 높이 이루고, 가장 널리 누리자!'라는 전략으로 따뜻한 경북교육을 세계교육 표준, K-EDU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삶이 있는 교육과정으로 학습자 주도성 신장 △힘이 되는 미래 교육으로 미래를 변혁하는 주체 △따뜻함

을 더하는 학교에서 모두의 완전한 포용을 실현 △혁신하는 교육지원으로 자생력 있는 학교 등 네 가지의 2024 경북교육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2024 경북교육의 첫 번째 핵심 가치는 학습자 주도성을 통한 '성장'이다. 미래를 열어갈 아이들이 지녀야 할 삶의 힘은 바로 주도성으로 이러한 주도성을 키우기 위해 학습에 집중하는 한편, 출발점을 질문으로 하여 수업 대화의 힘을 키우고 학교별 질문대회를 확산하는 등 질문이 넘치는 교실을 만들어 가겠다고 한다. 또한, 초대규모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 앱을 개발하여 디지털 지식 마루를 구축하여 학습 이력을 디지털 배지로 관리하는 한편, 11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AI 맞춤형 교수.학습플랫폼을 2025년에 서비스 운영 후 2027년에 완성하여 구현될 예정으로 학생 생성 교육과정과 개념 기반 수업을 통해 학생 주도형 수업을 완성해 나간다는. 또, 소규모 중학교를 찾아오는 학교로 만들기 위한 교과 중점학교 사업도 시범 추진한다. ▲두 번째 핵심 가치는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조화'이다. 먼저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학생 정신건강 위기관리 전담팀 운영과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바로 지원 365

신속대응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선생님께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긴급 지원단 운영과 교원 배상책임보험 보장을 확대한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통해 규제를 낮추고 창의와 실험을 높여 미래 교육지구를 12개 시군으로 확대해 지역별 교육공동체를 굳건하게 한다. ▲세 번째 핵심 가치는 세계이자 '미래'이다. 이를 통해 세계교육의 표준을 제시하여 K-EDU의 K를 경북교육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한다. 경북교육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교육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베트남을 비롯한 4개국 48명의 해외 우수 유학생이 경북의 직업학교에 입학하고 자율형사립고인 김천고에도 입학할 추진 중이다. 아울러, 과테말라에 18년간 지원해 온 정보화 지원 사업을 에티오피아로 확대하는 한편, 필리핀, 하와이 등의 나라에서 경북교육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 또한, 제1회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를 전남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며, 도농이음교실과 영호남 공동 수업, 공립 온라인 학교 설립으로 시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학생 해외봉사활동으로 배움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 구성원 모두와 함께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겠다고 하며 "2024년을 학습자의 주도성을 키우고 조화로운 교육공동체 회복에 힘써 경북교육을 세계교육 표준을 창출하는 'K-EDU의 원년'('대한민국 경북교육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언론인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임종식 교육감은 기자분들의 어려운 질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평소 소신을 밝히면서 흔쾌하게 답변해 역시 임종식 교육감이란 호평을 받았다. 이처럼 경북교육은 'K-EDU의 원년'('대한민국 경북교육의 원년')의 해에 '제일 먼저 새롭게, 보다 높이 이루어 가장 널리 누리는 전략'으로 세계교육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 2024년 경북교육은 24시간 쉬없이 아이들과 학교를 살피고 챙겨서 교육혁신의 페이지를 또 한 장 넘기는 각오로 교육청, 학교, 학부모, 학생,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삶의 힘을 키우는 2024 힘찬 새해 따뜻한 경북교육이 보다 힘찬 새장을 활짝 펼쳐 나갈 수 있기를 주문드려 본다. 윤근수/기자



의정부시,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개정 알림



형 승합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기존 3년 초과 8년 이하일 경우에만 1년 주기로 자동차 검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차량이 8년 이하인 경우에만 1년 주기로 시행될 예정이다. 8년 초과인 차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6개월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용 대형 승합차 대비 강화된 검사 주기를 적용하고 있는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도 검사에 대한 부담을 덜게 했다. 당초 차량 5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받는 검사 주기를 차량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받는 것으로 완화했다.

시 자동차관리과는 매 분기 마지막 달(3·6·9·12월)을 자동차 과태료 예방 집중 홍보의 달로 지정,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종합) 검사 과태료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내 주요 계시대애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청 전광판 및 시 홈페이지·관내 엘리베이터TV에 관련 내용을 송출하고, 홍보물품을 배포하는 등 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차주의 정기(종합) 검사 주기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시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관리 의무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건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2024년, 시민과 군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의정활동 펼쳐 주기를...”

26일, 제13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우수 기초의원 및 직원 112명에게 시상했다.

이번 의정대상은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시상은 ▲주민참여소통 분야, ▲지역현안해결 분야, ▲의정활동 분야, ▲공약실천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행정개선 분야, ▲의정활동개선 분야, ▲행정감사 분야, ▲예산절감 분야, ▲의정연구발전 분야, ▲의정봉사 분야 ▲의정활동 지원 분야 등 12개 분야로 진행됐다.



수원특례시의회 수상자로는 국미 순 의원, 김소진 의원, 김정렬 의원,

박현수 의원, 배지환 의원, 이대선 의원, 정종윤 의원 등 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렇게 표창패를 받게 된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4년 갑진년에는 더 힘찬 다짐으로 시민과 군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저 역시 내년에도 협의회회장으로서, 31개 시·군의회의 공동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직을 책임지면서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용인특례시, 환경 분야 유공 시민 40명에 표창장 수여

이상일 시장,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 강조

용인특례시는 26일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환경 분야 유공 시민 40명에게 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대상은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생태계 보전, 환경교육, 수질 보호, 환경미화(공무직, 민간대행), 재활용가 능자원 회수 선별 등 7개 분야의 유공 자들이다.

이들은 올 한해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헌신하고 시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해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이후 올해 수지환 경교육센터를 개소했고 내년에는 용인 특례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문을 열게 된다”며 “탄소중립 실현은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시장으로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대규모 프로젝트로 인해 개발이 불가피한데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며 “올 한해 맑고 푸른 친환경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하남시, 2023년 인구정책 토론회서 모든 세대 행복한 공존 방향 모색



하남시는 22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 인구정책 토론회’를 열고 모든 세대가 꿈꾸는 행복한 미래 비전을 모색했다.

2023년 인구정책 토론회는 ‘함께라서 행복한 하남’을 주제로 김교홍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장(하남시 부시장), 실무추진단 및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이혁진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남시 인구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섰다.

서울대 문리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구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경기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최진호 아주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분야별 토론회에는 △(청년정책) 손진희 숭실사이버대 교수 ‘하남시 청년문화·주거 여건 조성 등 청년의 관내 정착 방안’ △(보육정책) 문병용 하남가족센터장 ‘아동 돌봄 공공성 확보를 통해 아이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노년정책) 김은미 교수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 조성’ △(출산정책)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 ‘고령 인산부 증가와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 등 수준 높은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어 주제발표 후 발표자와 청중인 시민들이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플로어 토론’이 진행되며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인구

전략에 대한 다채로운 정책 의견들이 제시됐다.

토론회 좌장인 최진호 아주대 명예교수는 “오늘 토론회는 하남시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미래를 설계하고 공존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이 하남시정에 반영돼 인구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교홍 하남시인구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분들이 제안한 대안과 시민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2024년 하남시 인구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추진단을 본격적으로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면서 “아울러 당면한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목표로 ‘경제 허리’인 청년세대의 일자리 및 재정안정 지원정책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다섯째 이상 최대 200만원 → 2천만원) △공공산후조리서비스 확대(산후조리비 지역화폐 50만원 → 지역화폐 50만원 + 현금 50만원) △출산 준비비 교실 운영 △임신성당노검사 △산후 건강 관리 소모품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화성시, (사)우리글진흥원 주관 ‘2023년 공공문장 바로 쓰기 자치단체상’ 대상 수상

바르고 쉽고 품위 있는 공공문장을 일선 행정에 구현해 모범을 보인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노력 인정받아



화성시(가운데)가 ‘2023년 공공문장 바로 쓰기 자치단체상’을 수상했다.

광명시,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 107% 달성

광명시가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시는 26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 1만 4천24건 대비 107%인 1만 4천998건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성과에 대해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정책 방향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시장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일자리 창출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주민자치 매니저, 행복마을지킴이, 체납관리단 등 39개 사업을 추진했다.

직업능력 훈련 분야는 올해 목표의



129%인 3천55명을 기록했다.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 청년 구직자 및 기업 수요에 맞춤형 취업연계 직업교육훈련, 계층별 취업역량 강화 교육, 여성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장애인 평생 학습 강사 양성, 기후에너지 강사 양성 교육 등 17개 직업능력훈련 사업을 시행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상담, 취업 지원, 취업박람회 개최, 여성 재취업 연계 등 5개 고용서비스 사업을 통해 5천 785건의 지원 성과를 거두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자금 지원, 디딤돌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예코

디자인 창업자 발굴 등 창업지원 분야 7개 사업 206건, 고용장려금 지원 16건,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이동노동자 심터 운영, 고용환경 개선사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 지원 등 고용안전망 및 인프라 구축 분야 36개 사업 160건의 실적을 거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일자리 창출은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 분야”라며 “2024년에도 민생경제가 활력을 찾고 안정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시장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규범, 보고서 제대로 쓰기 등 관련 교육을 통해 소속 공직자들의 국어 능력 향상에 모범을 보인 공적을 인정받아 교육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00만 대도시로의 도약을 맞이해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무엇보다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와 전문 인력 육성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심층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어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직원 교육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관한 ‘2023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에서 공공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원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시현/기자

광명시, 올해 일자리 목표 1만 4천24건 대비 107% 1만 4천998건 창출

시는 2024년 3월 개관하는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를 통해 신중년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을 실시해 신중년 구직자 재취업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6월 광명산업진흥원 출범을 계기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신도시 조성을 통해 유망기업 유치와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시는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으로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고도화 ▲청년·여성 등 취업·창업 지원 강화 ▲광명형 미래산업 일자리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 ▲사회적경제 지원 기반 마련 ▲ESG 경영 선도 및 확산 ▲일자리 거버넌스 및 고용 안전망 공고화 등 6대 전략을 세우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및 신도시 미래산업 거점 육성, ESG 기반 창업 활성화 등 105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윤용민/기자



“더큰경주!더 나은미래” 역사문화관광도시 넘어 첨단도시로 도약하는 경주시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앞서는 경주

“두 개의 맞닿은 연못을 서로 연결해 물을 대면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뜻의 이택상주(麗澤相注)의 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주시가 역사문화관광도시를 넘어 첨단산업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18년 취임 이후 5년 간 경주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 온 만큼, 새로운 경주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감이 크다. 3년을 끌어온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으로 대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

m²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까지 경주시 문무대왕면 일원에 들어서게 됐다. 현재 국가산단은 전국 47곳으로 경북은 구미 6곳, 포항 2곳, 경주 1곳(월성원전) 등 9곳인 것을 감안하면, 경주시는 제조업 분야 첫 국가산단 유치라는 큰 결실을 거둔 셈이다.

SMR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국내 소형모듈원전연구개발의 요람이 될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연계한 특화사업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민선 8기 경주시의 핵심 전략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19일, 경주

세계 패권을 거머쥔 미국도 정부 주도로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2050탄소중립의 핵심전략으로 SMR 개발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다. 우리 정부도 SMR 독자개발 등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R&D 사업 투자를 공언하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경주가 있다.

경주는 6기의 원전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있어 원전산업의 최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지난해 7월 감포읍 일원에 SMR 연구개발의 요람이 될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착공에 들어가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건립사업은 국비 2700억 원 등 모두 6540억 원을 투입해, 1145만m² 부지에 연구시설 16개동을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오는 2025년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완공되면 연구 인력만 500~1000여 명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SMR) 연구개발 등 원전 고도화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경주시는 차세대 원자력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할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착공을 계기로 경주를 중심으로 원자력 연구개발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서울대 원자력연구소 유치 등 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원자력산업 주도할 '경주 SMR 국가산단'이다.

정부는 올해 3월 경주시 문무대왕면 미래 원자력산업을 주도할 SMR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확정했다. SMR 혁신원자력 국가산단은 문무대왕면 동경주 IC 인근 150만m²(46만 평)에 2030년까지 39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된다.

이에 따라 경주 문무대왕면 일원엔 세계 원전시장을 공략할 150만m² 규모의 SMR 국가산단이 들어서게 된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차세대 원자력 연구개발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게 경주시의 구상이다.

SMR은 쇠비선·선박 등 해양용과 우주용 전력 에너지원으로 응용 가능해 2035년에 세계 시장이 630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현장 설치비용이 적게 들고 대형 원전과 비교해 안전성도 높은 편이다.

SMR 국가산단에는 원자력·전력, 원전체제, 연구개발서비스 등 핵심 23개 업종과 그린에너지, 소재부품, 전기설

비 등 29개 연관업종이 입주할 전망이다.

경주시가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 앞서 SMR 연관 기업을 대상으로 한 'SMR 국가산단 경주 지정 시 입주 의향' 등을 묻은 조사를 보면, 국내 주요 대기업을 포함한 225개 기업에서 275만m²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정 시설용지(97만m²) 대비 283%에 해당하는 것으로, SMR 국가산단에 기업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인다는 방증이다.

경주시와 경북도는 SMR 부품 인허가 기관 설립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전 추진, 장기 임대 등 미분양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처럼 경주시는 SMR 국가산단 유치 타당성 조사에 나서며, 미래에너지 산업 중심도시로서의 비상을 서두르고 있다.

▲원전 해체 컨트롤타워가 될 '중수로해체기술원' 경주시 첫 삽이다.

원전 해체 기술 고도화·사용화 종합 컨트롤타워가 될 '중수로해체기술원'이 지난 19일 경주에서 첫 삽을 떴다.

원전 해체기술개발의 전초 기지가 될 이 시설은 경주시를 비롯, 경북도,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산업부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이다.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723억원을 들여 2만9487m² 부지에 방사화학분석동, Mock-up 시험동, 사무연구동 등이 들어선다.

중수로해체기술원이 완공되면 원전 해체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개발 기술을 실증할 시설 및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원전해체 기술에 요구되는 전문인력 기술지원 및 연구개발·실증 공간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해체 사업 관련 폐기물 분석 인프라 구축 및 분석사업을 통해 해체사업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SMR 국가산단,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중수로해체기술원이 조성 후 본격가동 하면 경주는 물론 경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른바 에너지 산업 중추기지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도 새로운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경주시의 복안을 직접 들여봤다.

▲먼저 신성장 동력 산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이다.

경주시는 정부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확보한 국비를 바탕으로 신성장 동력 산업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미래 꿈의 에너지인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 상용화를 위해 지난 2021년 착공한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또 올해 3월 정부가 신규 국가산단 공모에 경주가 선정되면서 2030년까지 전 세계 원전시장을 공략할 150만

시 양남면 나산리 일원에서 첫 삽을 뜬 '중수로해체 기술원' 역시 경주의 백년대계를 위한 새로운 먹거리가 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첨단 에너지 산업 도시로 도약한 '경주'이다.

'작은 부품 묶음 원자로'라는 그 뜻 그대로 SMR은 출력 300MW급 이하의 소형원자로로 안전성이 높고 설계와 제작이 매우 간단한 원자로다. 현재 세계 20여 국가가 71종의 SMR을 개발 중이며,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향후, SMR 시장 규모가 62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착공식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착공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원자력연구원

경상북도

경주시

충남도, "탄소중립경제 실현 중소기업 금융지원"

이에스지(ESG) 경영안정자금 신설...3년간 총 20억 이차지원

충남도가 탄소중립경제 실현 및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3년간 총 20억원의 이차지원을 지원하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안정자금을 신설했다.

도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홍 지사와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심현구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이종배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가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도와 IBK기업은행 및 2개의 보증기관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안정자금 신설 및 운영에 힘을 합친다.

기업은행은 3년간 총 1000억원 규모의 대출한도를 조성하고, 동행지원



협약 보증서를 우선해 대출을 실행하며, 최대 1.0%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0.2%의 보증료를 감면한다.

최정근/기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관내 수출기업의 인도네시아 판로개척에 불 지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이사장 홍태용)은 12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JI Expo 개최한 산업기계전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산업기계전은 올해 32회를 맞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산업기계분야 비즈니스(B2B) 전시회로 2023년 산업기계전에는 31개국 1,371개 업체가 참가해 약 3만 4천여 명이 방문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진흥원 지원기업 4개사(㈜야긴, 태성후렉시블, ㈜예림도장기, ㈜일성엠텍 및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8개사(오알에스코리아(유), 주식회사 유성이엔지, 신흥공업(주), 대명산업기술(주) (주)에스피시스템스, (주)영일, (주)에이치티테크, (주)케이에스이피)와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지원기업 3개사(주)유나스타, (주)제일중공, (주)에드테크) 총 15개사가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했다.

경상남도관은 수출상담 193건, 상담액 1,387만불, 계약기대 88건

(763만불)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주)예림도장기(김동수 대표)는 2건(35만불)의 MOU체결, 태성후렉시블(심성구 대표)은 2건(55천불)의 MOU체결, (주)제일중공(김주진 대표)은 1건(8,550불)의 MOU 체결하는 등 경남 기업의 경쟁력을 알리고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하는 기회가 됐다.

진흥원 담당자는 "이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산업기계전 참가를 통해 김해시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하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의 수출형 중소기업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통해 베트남 호치민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에 참가한 한울식품(김철범 대표)은 한국수산물협회에서 추진한 수산 식품 수출 브랜드 대전에서 대상(훈격: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최광용/기자

산·학·연 각계 전문가 등 에너지위원회 위촉식 및 에너지정책 논의

충청북도는 26일 제9기 충청북도 에너지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충청북도 에너지위원회는 김명규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신재생·수소·분산에너지·CCUS 등 최근 에너지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환경·인력양성·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15명, 도의회 추천위원 1명과 도청 내 당연직 위원 1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임기 2년(2023. 12. 26.~2025. 12. 25.)동안 충청북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각종 에너지정책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한다.

고정화/기자

제9기 충청북도 에너지위원회 개최

이날 위촉식과 더불어 도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토의도 진행됐는데, 최근 에너지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논의와 충북도가 역할을 집중해야 할 에너지 정책에 대해 17명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반영에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충북도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대내·외적으로 에너지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발빠르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에너지위원회가 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수소·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해 에너지 분야 제조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기업 유치, 2023년 막바지 총력!

26일 국내 우량기업 9개사와 1,176억 원 업무협약 체결



대전시의 기업유치 행보가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26일 오후 3시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국내 우량기업 9개사와 1,176억 원 규모 투자, 297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기업의 이전 및 신설 투자와 함께, 기업의 원활한 투자 진행을 위한 대전시의 행·재정적 지원으로 신규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공동 노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협약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상공회의소 정태희 회장을 비롯한 LIG정밀기술(주) 천기진 대표, (주)ML소프트 이우희 대표, (주)과학기술 분석센터 이익재 대표, (주)디엔에프신소재 김현기 대표, (주)바이오니아 김재하 부사장, (주)오김치 정미경 대표, (주)유넷 이창규 대표, (주)케이 김성현 대표, 한국센터연구소(주) 이수민 대표가 참석했다.

LIG정밀기술(주)은 국방무기 체계에 적용되는 전시기, 특수목적용 일체형 컴퓨터, 전원장치와 유도무기, 위성탑산장비 등을 개발 생산하는 방위사업체로 양산시설 확장에 따라 유성 죽동 사업장을 증설하기로 결정했다.

(주)ML소프트는 기업의 대규모 네트워크에 연결된 단말기 관리 및 통제 솔루션을 개발하는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업체로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접근통제, 단말기 관리 등이 주요 사업 분야이며 유성구 장대산단으로 이전 투자를 결정했다.

(주)과학기술분석센터는 고감도 센서기술을 이용한 환경오염 분석 및 모니터링 기술 보유기업이다. 대기·약취수질 분야의 환경오염 측정장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조하는 업체로 꾸준한 연구 및 기술개발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자 유성 둔곡산단으로 신설 투자한다.

(주)디엔에프신소재는 기능성 코팅소재 & 나노소재 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무기 폴리실라산 코팅제, 발수·기능성 코팅 소재 등이 주요 제품으로 코팅 소재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서구 평촌산단으로 이전 투자한다.

(주)바이오니아는 유전자 기반 '바이오벤처 1호'로서 질병 예방·진단·치료와 생명공학 연구개발(R&D) 바탕의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이다. 나노신소재 분야 사업영역을 확장하고자 서구 평촌산단으로 신설 투자한다.

(주)오김치는 식품 제조, 가공, 납품 전문업체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과 전통식품 품질 인증을 받아 배추김치 등 각종 김치류를 제조 가공하는 기업으로 대량 주문 생산 필요에 따라 서구 평촌산단으로 이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주)유넷은 차별화된 기술로 배터리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배터리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균일후막전극, 맞춤형전지, 테스트전지가 주요 사업 분야이다. 양산시설 확대를 위해 유성지역 개별입지로 이전 투자한다.

R&D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재료 회사인 (주)켄이는 디스플레이(LCD, OLED, μ -LED) 및 반도체용 감광성 재료 연구와 생산을 하는 기업으로 공장 확장 필요에 따라 서구평촌산단으로 신설 투자를 결정했다.

한국센터연구소(주)는 시스템반도체와 신뢰성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다양한 시료의 시험분석과 가스센서 및 복합센서 IoT형 스마트 센서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센서기술을 높이고 제품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대전산단으로 신설 투자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에도 대전시 투자를 결정한 주신 기업들에게 감사하다"라면서 "분양받고자 하는 산업단지에 조속히 자리 잡고 발전·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9개 기업 대표들도 "이번 이전 및 신설 투자 업무협약을 계기로 계속해서 기업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이라며 기업하기 참 좋은 도시 대전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혁신을 통해 많은 이익을 창출하여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민선 8기 들어 대전시는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SK온, LIG 넥스원 등 45개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고용 창출 2,825명, 1조 2,322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올렸다.

김원호/기자



부산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성료

관내 초·중학교 37교서 1,540여 명 학생 참가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1월 25일부터 한 달간 관내 초·중학교 37교 1,5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자기개발시기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북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초·중학교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드민턴·피구·배구·축구 등 4개 종목으로 대회를 운영했다. 대회는 종목별로 주무 학교를 정해 대진 추첨, 경기 방법 등을 정하게 해 자율적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26일 종목별 결과를 발표하며, 1·2·공동 3위에 상장과 메달을 수여했다.

특히, 올해는 학교별 스포츠클럽과 '아침체인지(體仁智)'를 연계해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고, 이는 그동안 위축됐던 학교 간·권역별·마을단위 스포츠 리그 등 학교 간 교류전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김범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우리 교육지원청은 체육활동이 학생들의 신체·정신·심리적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과 아침체인지(體仁智) 연계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부산교육청,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교육기부금 전달받아

난치병 앓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 64명에 1억 4천만 원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12월 26일 오후 4시 교육감실에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사랑의 날개 달기' 난치병 학생 돕기 교육기부금 1억 4천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식은 하윤수 교육감과 최금식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부산시교육청은 전달받은 교육기부금을 난치병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64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해 난치병 학생 돕기 '사랑의 날개 달기' 캠페인 성금 모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명륜초·센텀초·해장초 등 3교에 표창을 수여했다. 더불어 살아 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난치병 학생들의 치료를 위해 매년 힘써 주시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깊

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우리 교육청도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부산교육청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난치병 학생 돕기 '사랑의 날개 달기'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 난치병 학생 1,307명에게 35억 7,470만 원을 지원했다.

김희태/기자



경북교육청, 2023 학교급식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최다 수상

최우수상 2점, 장려상 1점 수상, 전국의 자랑거리로 선정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주관한 '2023년 학교급식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2점과 장려상 1점을 수상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수사례가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학교급식 우수사례 공모전은 교육부에서 2015년부터 유치원·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급식 운영과 정책 추진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건강한 급식 제공과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22년 최우수상 2편(경북교육청, 관호초)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상 2편(경북교육청, 구미봉곡초)과 (청도)동산초가 장려상 1편을 수상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수사례를 배출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전국 총 60여 점



이 응모해 최종 14점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에 받았으며, 그중 3점을 경북교육청에서 수상했다.

경북교육청은 급식·체육·보건 부서 등이 융합하여 '경북 학생건강 한마당'

행사를 운영해 융합 교육 추진 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구미봉곡초는 식생활 교육을 주제로 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개인과 집단 영양상담'이라는 영양불균형 문제

개선 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동산초(청도)는 "학생 동아리 활동으로 다양한 체험과 진로 교육"이라는 우수사례 발표로 장려상을 받았다. 최종 선정된 14편의 우수사례는 사례발표와 영상 제작 등을 통해 17개 시도교육청과 국민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의 '경북 학생건강 한마당' 우수사례는 전국 학부모 학교급식 정책모니터단과 시도교육청 급식 업무 담당자 온라인연수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도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은 학교급식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큰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번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앞으로 더 위생적이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위생과 영양 관리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많은 우수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더 큰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며 감사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집단(임금)협약 체결

경북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지난 21일 전북교육청에서 '2023년 집단(임금)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학비연대는 올해 9월부터 본교선 2회와 실무교선 11회 등 13차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교육공무직원 공동 임금체계를 △영양

사·교육복지사 등 1유형 △교무행정사·조리원 등 2유형으로 나누며, 이외에 △영역 회화 전문 강사 등 강사 직종은 공동 임금체계를 적용받지 못하는 유형 외 직종으로 분류된다.

임금 협약 체결에 따라 공동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직종과 특수 운영 직군의 기본급은 3.5%가 인상된 월 1,986,000원(2유형), 명절휴가비는 기존 연 16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된 연 170만 원이다.

또한 근속 수당의 근속 상한을 22년으로 1년 확대하고 위험 근무수당을 받는 영양사에 기존 위험 근무수당을 통합한 급식 운영 수당을 월 10만 원 신설했다.

특히 고령 친화 직종인 특수운영 직군은 가족수당을 신설하여 처우개선에 박차를 가했다.

강사 직종인 영어 회화 전문 강사는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초등스포츠 강사는 기본급 월 78,000원 인상과 근속 수당

을 신설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학비연대는 오는 12월 말까지 학교 운동부 지도자와 임상심리사를 1유형 편입을 신청하면 1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정중희 학교지원과장은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임금과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교섭문화 정착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세종시교육청, 제14회 청소년 사회참여발표대회 최우수 성적 거두다!

세종시 학생 국회의장상, 교육부장관상 등 수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1월 4일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서강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4회 청소년 사회참여발표대회'에서 세종시 학생들이 국회의장상과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최우수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로 열네 번째 대회인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이를 주제로 하여 최선의 정책을 제안하는 대회로서, 올해는 전국에서 49개 모듬, 258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열띤 대회가 치러졌다.

세종 두루중학교 '울악울악'팀은 '폐의약품의 올바른 처리, 당신의 건강을 지킵시다.'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폐의약품에 대한 처리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처리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이 높이 평가되어 국회의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어,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현상 해결 방법을 제안한 해밀고등학교 '슈퍼시니어팀'과 청소년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 다정고등학교 '우.직.해.(우리가 직접 해결해)' 팀이 정책 제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각각 교육부장관상과 교육감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본선에 진출한 12개 팀 중 3개 팀의 세종 학생들이 최상위 수상을 차지하며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가

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또한, 단 두 명에게 수여되는 지도교사상도 두루중학교 정지영 교사와 해밀고등학교 김영진 교사가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성과는 그간의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 좋은 결실을 본 결과이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며,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세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라고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매년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을 이끌고 주변 사회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탐구하여 이를 공공정책으로까지 제안하는 학생사회참여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최정근/기자

남원시 · 전북대학교

전북대 글로벌대학30 선정

폐교 서남대가

전북대 남원 글로벌캠퍼스로

다시 태어납니다!

미래를 이끄는 전북대 100 Global TOP 100

경북의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경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유산보고이자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에 도전합니다!

